

### 이흥재의 세상만사



본노에 찬 전국의 '개·돼지'들이 들고일어났다. 이미 다들 알다시피 "민중들은 개·돼지이니 먹고 살게만 해 주면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을 처음 한 이는 그가 아니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다." 신문사 논설주간인 이강희(백운식)가 영화('내부자들') 속에서 먼저 했던 말이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 인간 또한 그 영화를 봤던 모양이다.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면 기본 좋은 사람은 없다. '집승만도 못한 놈'은 육 중의 큰 육이다. 그러나 애초 잘못된 것은 우리 '개·돼지'들이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함부로 쥐나 닭에 비유했던 이들이 누구였는가. 그러나 '99%의 민중들에 대한 1%

귀족들의 복수(復讐)'를 우리는 진즉 예상했어야 했다.

교육부 나향욱(47) 정책기획관. 명문대를 나온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2급 고위직까지 올랐다. 민중들에 의해 쥐에 비유된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냈으며, 닭에 비유된 대통령 밑에서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주요 정책을 기획하는 핵심 보직이다.

#### 국민을 개·돼지로 여겼더니

우리가 지금 더욱 분노하는 것은 그렇게 비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점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개처럼 '꼬랑지'를 내리긴 했지만, 그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해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빛나간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엇그제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당연히 그가 화제에 올랐다. 마침 그 자리엔 행정고시 출신 퇴직관료가 있었는데 고위 공무원을 지낸 이 선배는 "과거 동료들 중에도 의외로 '포라이'들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이날 우리가 멋대로 내린 결론은

### '예서 멍멍 제서 꿀꿀' 분노의 헬조선

"인문적 소양의 결핍"이었다. "고시에 합격할 정도로 머리가 좋되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느라 독서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대로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좌뇌는 아마 텅 비어 있을 것 아닌가" 그런 말들도 나왔다.

또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한 선배는 '허는 몸을 자르는 칼'인데 하며 허를 꿀꿀 찼다. 아마도 후당(後唐) 때 재상을 지낸 풍도(馮道)라는 사람의 '설사'(舌辭)를 떠올렸던 모양이다. "입(口)은 화(禍)의 문이요(口是禍之門)/ 허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舌是斬身刀)/ 입을 다물고 허를 깊이 간직하면(閉口深藏舌)/ 몸이 어느 곳에 있는지 편안히라(安身處處安)"

세상엔 세 지 허를 잘못 놀려 결국 되돌릴 수 없는 화(禍)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번엔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망언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은 사고(思考)의 그림자"라고들 하지 않던가. 언뜻 보면 불쑥 튀어나온 것 같지만 평소 생각하던 바가 말이 되어 나왔다는 얘기가.

그런 점에서 그는 단순히 '말실수'를 한 게 아니라 평소의 소신을 피력했음이 분명하다. 사실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상위 1%의 사람들 중에는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엇그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의 원에게 "개가 짊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말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흑인들이나 라틴계는 사회적 계단을 올라갈 꿈도 꾸지 않는다"면서 "신분제를 공고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한 데 이르러서는 두렵고 섬뜩한 생각이 든다. 반사회적 반공동체적 인식인 데다 특권층의 내심을 무심코 대변한 것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 교육부 아닌 가족사육부였다

국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고위관리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동안의 교육부는 교육부가 아니라 가족사육부'였다는 데 생각이 미치지 더욱 울분을 가눌 길 없다.

'인격 없는 교육'(Knowledge without Character)은 마하트마 간디가 꼽은 '국가가 망할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징조' 중의 하나다. '원칙 없

는 정치', '노동 없는 부(富)', '양심 없는 쾌락',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아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대한민국의 '망조'(亡兆: 망할 징조)는 우리나라가 '1% 그들의 세상'이라는 국가기밀을 폭로한 일베진 교육부 나리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부로는 1% 안에 들었을 서울대생 8명이 채팅방에서 동기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몰도덕의 나라. 자신을 천원짜리 자랑하며 '천원 패하만세'를 삼창했다는데도 국무총리실 산하 무슨 연구원의 센터장 자리를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 '청년 돼지'들은 일자리가 없어 예서제서 밥 좀 달라며 울부짖는데, 어느 변호사는 100억 원이 넘는 수입료를 받고도 태연한 나라. 바로 서민들에게는 지옥 같은 '헬조선'이다.

그러나 당장 누군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겠다고 나선다 해도 소꿉꿉 부어잡고 말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아, '내부자들'의 이병헌처럼 '모히또 가서 불다브나 한잔' 하며 쓰린 가슴 달래야 할까 보다. 그곳에서라면 개·돼지 취급받지 않고 살 수 있겠나? <주필>

## “어등산 소송’ 대화·타협으로 풀겠다”

광주시, 투자금 반환 강제조정안 이의 신청  
“시민단체 등 설득 대안 도출되면 신청 취하”

광주시는 14일 어등산 기존 개발업체인 (주)어등산리조트가 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과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정결정을 내리지 14일만으로, 이날은 이의신청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1일 (주)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다.

시는 애초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오는 9월경 새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 연말 안에 선정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조정을 받아들인 뒤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었다. 그러나 시는 이를 뒤집고 “시민단체와 함께 대안을 도출하겠다”며 이의신청 기간 막판에 조정을 거부했다.

열방열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법원 조정이 타당하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으나, 이런 저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시민단

체와 모든 쟁점에 대해 진솔하게 토론하고 싶다”고 밝혔다.

열 실장은 또 “소송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설명과 설득 후 이의신청을 취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조정은 하되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민단체의 동의를 구한 뒤에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처럼 광주시가 막판에 조정을 거부한 데는 지난 12일 윤장현 광주시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면담이 분기점이었다. 당시 면담에서 ‘이면계약’, ‘특혜’ 등이 거론되자 윤 시장은 “인생을 걸겠다”고 정색하며 부인했지만 결국 시민단체를 다독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시민 시장을 자처한

윤 시장은 최근 임기 전반기 결산 평가에서 시민단체들의 맹폭을 받아 ‘후배’들과의 결속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열 실장은 “이른 시일 내에 시민단체와 함께 대안을 도출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게 지금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빠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기공한 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됐다면 지난해 이미 끝났어야 했다. 애초 계획은 군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지난해까지 유휴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었지만 불발한 제가, 사업자 변경 등으로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남구 사직동 ‘음악의 거리’·‘변화위북 순천대학교’ ‘골목경제활성화 사업’ 선정

#### 행자부, 10억씩 지원

광주시 남구 사직동 일대 일명 ‘음악의 거리’와 순천의 젊은 상권을 대표하는 ‘순천대학교’가 강원 평창의 ‘양떼 동화마을’과 함께 행정자치부 ‘골목경제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4일 “구도심의 쇠퇴한 영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골목경제활성화사업’의 올해 대상지로 ‘광주 음악의거리’, ‘양떼 동화마을’, ‘변화위북 순천대학교’ 등 3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6개 지역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활성화 필요성, 주민참여도, 성과창출 효과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3곳에는 30억원의 재정이 투입돼 시설개선, 테마거리 조성, 먹거리 확충 등 다양한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새롭게 문을 열게 된다.

광주시 남구 사직동 일대는 80~90년대 ‘통기타 거리’로 불린 음악의 메카였다. 거리에는 통기타 선율이 흘러 넘쳤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노래방 문화가 확산되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 현재는 24개 점포만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과거의 화려한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리 입구에는 랜드마크, 오디오 스테이지, 야외 전시공간 등이 들어서며, 주차 없는 거리를 위한 디자인 구조물도 설치된다. 사직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음악창작소,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을 연결하는 관광코스가 신설되고, 협동조합형 마을기업 설립을 통해 상권 재편을 유도한다.

순천 ‘변화위북 순천대학교’는 순천대 대학가 상권으로 한때 번창했으나 신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공동화가 되며 침체된 곳이다. 97개의 점포가 운영중이며, 창업 스톨 요식업을 통한 ‘청년가게’ 입점, 청춘길·상설공연장·랜드마크 조성, 스토리 간판 정비 등과 함께 프리마켓과 공연을 접목한 마을축제 정기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3곳 모두 건물주와 입차인이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완료 후 5년간 임대료 동결을 협약하는 한편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구도심이 개발되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광주 U대회 성공개최 감동 재현

1주년 기념행사 열려  
시민 등 3만여명 운집  
‘희망 세리모니’ 펼치고  
가수 축하공연 등 자축

광주시는 1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성공개최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Thank U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대회 성공개최의 주역인 시민들이 참여해 젊음과 열정, 패기가 넘쳤던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 번 재현했다.

광주 공동체의 미래와 발전에 대한 결의를 시민 모두가 함께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3만여 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와 1·2부 공식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는 광주의 다섯 가지 매력을 춤으로 표현하는 ‘오매! 댄스팀’의 공연이 펼쳐졌고, 1부 공식행사에서는 U대회 성공개최에 기여한 주요 인사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한, 윤장현 광주시장의 U대회 성공개최의 주역이었던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광주의 희망 세리모니’와 레이저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2부에서는 대회 성공개최의 밑거름이 된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비투비, 마마무, 인순이, 홍진영, 임형주 등 아티스트 가수부터 중장년층까지 선호하는 5명의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사람 찾음

성명: 박영옥(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 보라색 상의 집바와 열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 물건

- [금매]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 ▶ 거래가 18억원
- 화순군 남면 사평리 대지218평 전망좋은 건축가능 부지 ▶ 감정이 2천6백만원 최저가 2천6백만원
- 남구 월산동 3층원룸 건물133평 토지74평 코너위치 18가구 위치좋은 ▶ 감정이 4억6천 최저가 3억7천만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 감정이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 (감정가에56%)
- 북구 중흥동 대로변 상가 2층건물 136평 토지222평 위치.건물상대 최상 ▶ 감정이 12억원 최저가 12억원

###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미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진입가능 창고상대양호 ▶ 감정이 1억2천만원 최저가 5천3백만원
- 북구 오치동 3층다가구주택 건물105평 토지58평 건물양호 서산초등학교인접 ▶ 감정이 3억5백 최저가 2억2천만원
- 전남 보성군 인로잇은 편백및 삼나무식재된 투자가치우수 ▶ 감정이 5천4백만원 최저가 3천8백만원
- 북구 용봉동 4층중 3층복합상가 건물 30평 토지 18평 사무실추천 ▶ 감정이 1억2천5백만원 최저가 3천7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 아버지 스피치 교실

###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광주광역시북구공고 제2016 - 880호

### 풍향어린이공원조성계획수립(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공고 알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북구 풍향동 29-20번지 일원의 관내 미조성 풍향어린이공원조성계획수립(안)에 대한 열람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 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15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 공 원 명 : 풍향어린이공원 ( 2007. 11. 28 결정고시)
  - 위 치 : 북구 풍향동 29-20번지
  - 면 적 : 4,342㎡
  - 조성계획 내용
    - 시설(시설율 37.1%) : 평야, 운동시설물, 조합놀이대, 안내판 등
    - 녹지(녹지율 62.9%) : 공원화단 조성
2. 열람기간 및 장소 : 2016년 7월 15일 ~ 2016년 7월 28일(14일간)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62-510-1563)
3.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4.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